

남동구, 주거 취약계층 안전 근본적 삶의 질 개선에 집중

남동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근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풍수해 등 재난-재해에 대비해 매년 지역 내 반지하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거주 현황 및 재해 취약 여부 등을 파악, 후속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남동구 내 반지하 세대는 모두 7,340호로, 이 가운데 거주환경이 심각으로 조사된 세대는 3,471가구로 파악됐다.

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8가구에 대해 장기방치 적치물·폐기물 등을 정비했고, 풍수해 등이 예상되는 71가구에는 지속적으로 순찰·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반지하 세대의 근본적인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에도 주력하고 있다.

남동구는 본격적인 전수조사가 시작된 2023년 역류방지밸브 886개(233세대)와 차수관(물막이판) 295개소(116세대)를 설치했으며, 2024~2025년에도 역류방지밸브 194개(51세대)와 차수관 201개소(62세대)를 설치·지원했다.

역류방지밸브는 배수구에 부착해 하수 역류를 차단하고, 차수관은 출입문이나 창문에 설치해 외부 빗물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구는 2023년 전수조사를 통해 연안 난방을 사용하는 23가구를 확인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과 협력해 6가구에 대한 기름보일러 교체 지원했다.

유휴 구청장, '계양실버 농장' 개장 현장 방문

계양구(구청장 유휴)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4월 1일 '계양실버농장'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계양실버농장'은 어르신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자연 속에서 신체활동을 이어가고,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계양구 대표 노인복지 사업이다.

이날 유휴 구청장은 개장 현장을 찾아 농장 운영 전반과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참여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구는 계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850명의 신청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노인 순으로 총 481명을 선발했으며, 선정된 어르신들에게 농장을 무료로 분양했다.

참여자들은 오는 11월까지 각자 원하는 작물을 자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특히, 계양실버농장은 단순한 텃밭 운영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이웃 간 관계 형성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매년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어오고 있다.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개통, 장제로 교통혼잡 해소

4월 8일 오후 2시 개통, 주행거리 24% ↓ · 이동시간 44% ↓ ...계양·서울 접근성 크게 향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검단~드림로 간 연결도로를 4월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되는 도로는 광역시도52호선(총연장19.7km) 구간 일부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1년 착공 이후 5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검단지구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 이후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와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요

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계양 및 서울 방면으로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해당 도로의 조속한 개통이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1.2km 감소(5.1km→3.9km,△24%)하고, 이동시간 10분 단축(18분→8분,△44%)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하던 장제로 구간의 교통량이 분산됨에 따라 검단지역은 물론 인근 계양구 및 서울 서북부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검단~드림로간 연결도로 개통은 검단지역과 타 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지원지방도 및 혼합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8년 '제37회 전국무용제'유치에 성공했다. 17개 시·도 대표 무용단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용 축제로, 약 5만 명 방문과 238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행사는 2028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인천문화예술회관과 부평아트센터 등 관내 주요 공연장에서 열린다. 총사업비는 약 15억 원 규모로, 인천광역시와 (사)대한무용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무용협회와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무용제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장르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대표 무용 경연으로, 인천에서는 200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다. 아울러 전국무용제가 서울,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순환 개최되는 대표 문화 행사인 만큼, 기존 개최 경험과 공연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 시리포트 인증 챌린지' 운영

'유보통합 현장지원 운영 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성훈)은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학기 진로 시리포트 인증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관내 초·중·고 학생

을 대상으로, 학생의 진로 활동을 AI가 분석해 적합한 직업과 선택 과목 등을 추천해 주는 '진로 시리포트'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인

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 접속해 진로AI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한 뒤, 생성된 진로시리포트를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신청·접수]에 업로드하면 된다.

지난 1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계자 및 지자체 파견 인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보통합 현장지원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상돈 부교육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희미 육아정책연구소 유보통합실현연구지원단장의 '유보통합 정책의 이해와 향후 추진 방향' 특강, 인천시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심하린 기자

백령 섬박이물범 생태관광체험센터 협약



웅진군은 2일 백령면사무소에서 백령도 섬박이물범 생태관광체험센터, 인천녹색연합(황해물범시민사업단)과 '백령 섬박이물범 생태관광체험센터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백령도의 소중한 생태 자산을 보호하고,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생태관광체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전시 콘텐츠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백령도 생태 사진 및 영상 자료 상호 공유를 통

한 전시 콘텐츠 구축 ▲방문객들이 지역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단체 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상시 자문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특히 웅진군은 별도의 자료 조사 및 자문 용역을 체결하는 대신, 오랜 기간 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 민간단체의 노하우와 자료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지역사회와 밀착된 생태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가 지역의 생태·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거점이자, 관광 명소로 도약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 스마트빌리지 공모 국·시비 15억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6년 스마트빌리지 군·구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시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마을 단위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강화군은 '스마트 참여형 재활용 동네마당 개선사업'과 '스마트 서비스 헬스케어 리빙랩 사업'을 제안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총사업비는 17억 6천만 원 규모이다.

'스마트 참여형 재활용 동네마당 개선사업'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사업이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강화읍 소재 재활용 동네마당에 모션 인식 카메라, 센서, LED 조명 등을 설치해 종량제봉투 미사용이나 비분리 배출 시 경고 음성이 자동 안내되도록 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주민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및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스마트서비스 헬스케어 리빙랩 사업'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의료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 등 생활형 의료 연계 체계를 스마트 경로당에 구축하는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아갈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재활용 동네마당 이용이 한층 개선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강화군 실정에 맞는 스마트 도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서구, '비상경제 대응 TF팀' 전격 가동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비상경제 대응 TF팀을 가동하고 민생 경제 안정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TF는 행정안전부의 비상경제 대응 방침에 발맞춘 선제적 조치이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지역경제대응·농축산물관리·기업지원·유류가격안정화 등 4개 팀을 구성해 상황 종료시까지 분야별 맞춤형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민생물가 안정에서는 전통신장·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현

장 점검을 강화하고, 생필품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지역상품권 '서로e' 캐시백 이벤트 운영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도 병행한다.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피해 기업 상시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수출·물류 분야별로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안내한다.

▲에너지 수급 관리 측면에서는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및 매점매석 행위를 현장 점검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도 즉시 시행한다.

주최 GUNPO 주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하철 타고 떠나는 봄꽃여행!
시민의 일상이 축제가 되다

12th 군포철쭉 FESTIVAL

2026.4.18. SAT ~ 4.26. SUN

철쭉동산 · 철쭉공원 · 차없는거리